

남자 고등학생의 분노표현, 자살생각 및 인터넷 중독 정도간의 관계

The Study on the Relations among Anger, Suicidal ideation and Internet Addiction in Male High School Students

진은영, 서영미
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과

Eun-Young Chin(eychin@wu.ac.kr), Young-Mi Seo(dudn0408@wu.ac.kr)

요약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분노표현, 자살생각 및 인터넷 중독 정도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남자 고등학생 191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자가보고형 설문지를 통해 2011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자료수집 하였다. SPSS Win/17.0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상관관계 및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인터넷 중독과 분노표현 및 자살생각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분노표현과 자살생각도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분노표현이 높을수록 자살생각도 높게 나타났고 친구관계도 분노표현, 자살생각 및 인터넷 중독의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인터넷 중독 정도에 영향 주는 주요인으로서 인터넷 사용시간과 분노표현 변수가 총 29.0% 설명되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 활용을 위한 자기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인관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 **중심어** : | 자살생각 | 분노 | 인터넷 중독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 among anger, suicidal ideation and internet addiction in male high school students. In order to get the data by self-report questionnaires, 191 subject were selected from 1th to 30th of April, 2011.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WIN/17.0. There were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suicidal ideation, anger and internet addiction. Internet use hour and anger explained 29.0% of variance for internet addic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self-management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ogram should be need to prevent problem of internet addiction.

■ **keyword** : | Suicidal Jdeation | Anger | Internet Addiction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조사한 인터넷이용실태조사결과로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인터넷 보급률은 95.9%로 가장 높았고, 2010년 5월 기준으로 인터넷 이용자 수는 3천701만 명으로 인터넷 이용률이 2000년 44.7%에서 77.8%로 10년 동안 약 2배가 증가하였다. 이 중 10대의 인터넷 이용률은 99.9%로 거의 모든 10대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어[1],

* 이 논문은 2011년도 원광보건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서 수행됨.

접수번호 : #111125-004

접수일자 : 2011년 11월 25일

심사완료일 : 2011년 12월 27일

교신저자 : 진은영, e-mail : eychin@wu.ac.kr

청소년들에게 있어 인터넷은 일상생활의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2]. 인터넷 사용은 현대를 사는 청소년들에게 세계화 및 국제 경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유용하고 필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3], 흥미나 오락위주의 인터넷 사용 때문에 청소년들의 정서 발달 및 인격형성 장애, 중독 현상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2].

분노는 일상생활 사건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정상적인 정서반응이다. 인간의 분노 반응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기제를 활성화하고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4], 분노표현이 부적절하거나 지나치면 불안, 신경증 및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공격적인 언어나 행동으로 표현되는 분노는 인간관계를 악화시킨다[5]. 분노의 부적절한 표현 중의 하나인 억압된 분노는 심장질환이나 우울의 원인이 되며 삶을 위협하는 자살과 관련이 있다[6]. 분노 조절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면 자신의 억압된 분노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터넷에 집중하게 되는데[7] 청소년들은 매력적인 인터넷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인터넷 사용이 증가하게 되고 결국에는 인터넷에 중독될 경향을 보인다[8].

청소년기는 신체적, 인지적 및 정서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불완전한 시기로 자아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아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을 상실하게 되어 [3] 자살방법이나 가출정보 등을 알려주는 유해사이트에 쉽게 접할 수 있다. 자살생각과 인터넷 중독과는 유의한 관계가 있어 자살생각이 높을수록 인터넷에 더 심하게 중독되는데[9] 청소년 보호를 위해 여성가족부에서는 유해사이트 삭제 및 정보접근차단 조치를 한 바 있다[10]. 청소년기의 과도한 인터넷 사용은 자신의 정체성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급격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청소년 일탈행동의 대표적인 인터넷 중독에 쉽게 빠지게 되는 것이다[7].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을 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인터넷 중독에 더 많이 노출될 위험이 크고[7] 실업계 열 고등학생의 특성상 인문계열 고등학교 학생들과 교과과정, 교육환경, 컴퓨터 이용시간 및 여가활동에 차이

가 있고 인문계열 학생보다 학교생활에 부적응 양상을 보인다고 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11] 대상자를 실업계 남자 고등학생으로 선정하였다.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관련한 연구들이 공격성[12], 분노표현 [7][13][14], 자살생각[2],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15] 등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분노표현과 자살생각 그리고 인터넷 중독 정도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업계 남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분노표현, 자살생각 및 인터넷 중독 정도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고 자신의 정서 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 간호중재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대상자의 자살생각, 분노표현, 인터넷 중독 정도를 확인한다.
- 둘째,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분노표현, 자살생각 및 인터넷 중독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셋째, 대상자의 자살생각, 분노표현, 인터넷 중독 정도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넷째,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 영향요인을 확인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남자 고등학생의 분노표현, 자살생각 및 인터넷 중독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인터넷 중독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표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D 광역시 소재 1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편의 표집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1년 4월 1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 약 1개월간 진행되었으며, 학교장, 해당 담임교사 및 보건교사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담임교사

의 협조를 얻어 보건교사가 수업 종료 후 종례시간을 이용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연구자로부터 연구진행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은 보건교사가 학생들에게 연구에 동의하는 사전 동의서를 받아 연구에 동의한 학생들에게만 설문지를 배부하도록 하고 설문지를 시행하였다.

설문 응답시간은 20-25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총 200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었고, 회수된 설문지 중 무응답이 많거나 자료처리에 부적절한 설문 9부를 제외한 191부(95.5%)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대상자의 수는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에서 표본 수를 구하기 위한 G power program(Erdfelder, Faul, & Bunchner, 1996)에 의하면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효과크기 .06, 3개 독립변수(인터넷 사용 시간, 자살생각, 분노표현)로 하였을 때 186명이 결정되어 본 연구의 표본 수는 분석을 위해 충분하였다.

3. 연구도구

3.1 분노표현

분노표현 측정도구는 Siegel[16]의 Multidimensional Anger Inventory를 이봉건[17]이 번안한 총 38문항의 5점 척도로서,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38점에서 19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분노의 감정이 높음을 의미하며 부정문은 역환산하였다. 이 도구의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89$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8$ 이었다.

3.2 자살생각

자살생각 측정도구는 Beck 등[18]이 개발한 척도를 신민섭 등[19]이 자가보고형 설문지로 변형한 Scale for Suicidal Ideation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자살시도 전에 자살에 대한 심각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검사 결과는 이후에 보일 자살 행동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이 도구는 총 19문항의 3점 척도로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38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높은 것으로 보았다. 신민섭[19]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1$ 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90$ 이었다.

3.3 인터넷 중독 정도

인터넷 사용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개발한 한국형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검사(K-척도)를 사용하였다[20]. 총 40개 문항의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항상 그렇다' 4점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점수의 범위는 40점부터 160점까지이며, 점수에 따라 인터넷 중독 정도를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일반 사용자 군으로 구분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병리적 중독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컴퓨터에 대한 의존 행동이 빈번하게 나타나 컴퓨터 사용시간을 스스로 조절하기 어렵고, 이로 말미암아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 정도가 심각함을 의미하고, 이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96$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2$ 로 나타났다.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7.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척도의 내적 일관성을 보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분노표현, 자살생각, 인터넷 중독 정도는 최소값, 최대값,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분노표현, 자살생각, 인터넷 중독 정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t-test, One-way ANOVA를 사용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항목의 사후 분석은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분노표현, 자살생각 및 인터넷 중독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산출하였다. 남자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특성

연구 대상 남자 고등학생의 평균연령은 16.54(± 0.57)세로 대상자 특성은 [표 1]과 같다. 인터넷상 친구가 '없다' 63.4% 실제 생활 친구는 '있다'가 90.6%이었다. 인

터넷 사용시간은 '2시간 이상~4시간 미만'이 55%였으며,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게임 및 오락'이 49.2%로 나타났다. 가족이나 친척 자살은 '없다' 97.9%, '있다'가 2.1%로 나타났다.

표 1. 대상자의 특성

(N=191)

특성	구분	실수	%
나이	16세 이하	94	49.2
	17세 이상	97	50.8
인터넷상 친구	있다	70	36.6
	없다	121	63.4
실제생활 친구	있다	173	90.6
	없다	18	9.4
인터넷사용 시간	< 2시간	66	34.6
	2 ~ 4시간 미만	105	55.0
	≥ 4시간	20	10.5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	정보검색	72	37.7
	게임 및 오락	94	49.2
	e-mail	25	13.1
자살력	유	4	2.1
	무	187	97.9

2. 자살생각, 분노표현, 인터넷 중독 정도

대상자의 분노표현 평균은 85.62±20.73, 자살생각은 평균 5.49±5.98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중독 정도는 평균 58.88±12.92로 나타났다[표 2].

표 2. 분노표현, 자살생각, 인터넷 중독 정도

(N=191)

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 표준편차
분노표현	38	187	85.62 ± 20.73
자살생각	0	34	5.49 ± 5.98
인터넷 중독	40	103	58.88 ± 12.92

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분노표현, 자살생각 및 인터넷 중독 정도의 차이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분노표현, 자살생각 및 인터넷 중독 정도의 차이는 [표 3]과 같다.

분노표현 점수는 인터넷상 친구가 있는 경우 (2.54±0.50)가 없는 경우(2.37±0.44)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t=2.44, p=.015).

자살생각은 인터넷상 친구가 있는 경우(0.37±0.37)가 없는 경우(0.25±0.27)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2.29, p=.024). 또한, 인터넷 사용시간에 따른 자살생각은 '4시간 이상'인 경우(0.50±0.47)가 '2시간 이상~4시간 미만'(0.29±0.30), '2시간 미만'(0.24±0.24)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0.55, p=.003), 사후검증 결과 인터넷 사용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가 4시간 미만인 경우보다 자살생각이 높게 나타났다.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노표현, 자살생각 및 인터넷 중독 정도

(N=191)

특성	구분	분노표현		자살생각		인터넷 중독 정도				
		M	± SD	t or F (p)	M	± SD	t or F (p)	M	± SD	t or F (p)
나이	16세 이하	2.46	± 0.43	0.64	0.31	± 0.29	0.65	54.97	± 11.01	1.14
	17세 이상	2.41	± 0.50	(.523)	0.28	± 0.33	(.517)	57.84	± 14.51	(.255)
종교	유	2.42	± 0.49	-0.52	0.32	± 0.35	-1.01	59.31	± 12.07	-0.39
	무	2.46	± 0.44	(.602)	0.27	± 0.29	(.316)	58.58	± 13.07	(.699)
인터넷상 친구	있다	2.54	± 0.50	2.44	0.37	± 0.37	2.29	60.83	± 12.67	1.59
	없다	2.37	± 0.44	(.015)	0.25	± 0.27	(.024)	57.76	± 12.98	(.114)
실제생활 친구	있다	2.43	± 0.43	-0.02	0.29	± 0.29	-0.43	59.06	± 13.09	0.57
	없다	2.44	± 0.78	(.986)	0.32	± 0.48	(.665)	57.22	± 11.34	(.568)
인터넷 사용 시간	<2시간	2.43	± 0.40	.775	0.24	± 0.24	.55	53.08	± 9.34	15.18
	2~4시간미만	2.42	± 0.48	(.462)	0.29	± 0.30	(.003)	60.71	± 12.44	(.001)
	≥4시간	2.56	± 0.63		0.50	± 0.47		98.45	± 17.09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	정보검색	2.45	± 0.44	.46	0.31	± 0.31	0.46	56.57	± 12.18	2.76
	게임 및 오락	2.41	± 0.44	(.631)	0.29	± 0.30	(.634)	61.09	± 13.53	(.066)
	e-mail	2.50	± 0.66		0.24	± 0.37		57.28	± 11.65	

4. 분노표현, 자살생각, 인터넷 중독 정도의 상관관계

분노표현과 자살생각, 인터넷 중독 정도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것은 [표 4]와 같다. 인터넷 중독 정도는 분노표현($r=.28, p<.001$), 자살생각($r=.20, p=.006$)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살생각과 분노표현도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r=.36, p<.001$).

표 4. 분노표현, 자살생각, 인터넷 중독 정도의 상관관계 (N=191)

변수	분노표현	자살생각	인터넷 중독
분노표현	1		
자살생각	.36(<.001)	1	
인터넷 중독	.28(<.001)	.20(.006)	1

5. 인터넷 중독 정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인터넷 중독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용 시간은 가변수(dummy variable)로 처리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인터넷 중독 정도의 영향요인 (N=191)

변수	B	SE	β	t	p	F(p)	Adj.R ²
상수	27.05	5.13		5.27	<.001	33.68	0.290
인터넷 사용시간	0.07	0.01	0.41	6.17	<.001	((.001)	
분노표현	9.91	2.07	0.32	4.78	<.001		

다중공선성 검증과 잔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인 간의 공차한계(Tolerance Limit)가 0.87-1.00 이상으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s, VIF)범위는 1.00-1.14로 기준치 1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문제를 배제할 수 있었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 검증을 위해 Durbin-Watson 값을 구한 결과 2.01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중회귀분석결과, 회귀모형 적합도 F 값은 33.68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므로($p<.001$), 회귀식의 R²값은 .30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채택된 측정변인들의 인터넷 중독 정도에 대한 설명력은 29.0%였다.

분석결과 인터넷 중독 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인터넷 사용시간($\beta=.41, p<.001$), 분노표현($\beta=.32, p<.001$)이었고, 자살생각은 모형에서 제외되었다.

IV. 고찰

본 연구는 실업계 남자 고등학생의 분노표현, 자살생각 및 인터넷 중독 정도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 대상자 중 인터넷상 친한 친구가 있는 경우는 36.6%로 실제 생활에서 친구가 있는 경우보다는 적게 나타났다. 친구 관계에서 친구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집단이 실제 생활에서 또래와 어울리지 못하거나, 어울려 노는 것에 재미를 느끼지 못할 때 혼자서 즐길 수 있는 인터넷에 몰입하게 되어 인터넷 중독에 쉽게 빠지게 되고[21], 인터넷에 중독될수록 대인관계의 적절성이 떨어지고 나아가 대인관계를 형성할 때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8]. 청소년기는 특성상 가족 외의 대인관계를 많이 맺는 시기이며, 가족 외적인 관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친구관계라 할 수 있으므로[22] 학교와 가정에서는 청소년의 대인관계가 인터넷 공간이 아닌 실제 생활에서 잘 형성되도록 대인관계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개발과 관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인터넷 사용시간은 2~4시간 미만인 55%였으며, 주로 게임 및 오락을 하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다[23][24]. 청소년들은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터넷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21], 청소년들의 가장 큰 학습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활용한 재미있는 교수-학습법 개발과 학업에 도움이 되는 인터넷을 활용한 유익한 정보탐색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가정과 학교에서 인터넷을 하는 용도나 시간의 규칙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자기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분노표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인터넷상 친구가 있을 때 분노표현이 높게 나타났

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실제 생활 속에서 대인관계에 만족하지 못할 때 인터넷 공간 속에서의 대인관계에 집착하는 경향으로 이어져서[23] 인터넷상 친구에게 의지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건강한 교우 관계를 맺어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지적 체계로써 친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학교를 포함한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의 차이를 살펴보면, 인터넷상 친구가 있는 경우와 인터넷 사용 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가 자살생각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청소년의 자살과 관련하여 인터넷 사용 시간이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한 문동규와 김영희[24]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문화적 상황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중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Cui 등[25]의 연구에서 자살생각은 친구관계와 친한 친구의 수와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고등학생인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심리 사회적으로 독립하려는 시기로 친구관계가 중요하다. 그렇지만,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부모의 지지가 중요하다는 선행연구[24]에서 알 수 있듯이 각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대화 시간이 줄어들면서 대화할 상대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인터넷 사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올바른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교육의 시행과 더불어 학교에서는 건강한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인터넷 중독 정도와 분노표현, 자살생각은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연구도구가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박영주 등[13]의 연구에서 분노표현에서도 한국의 청소년들이 분노표출이나 분노억제와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6], 류은정 등[2]의 연구에서 높은 자살사고의 점수를 나타낸 경우 인터넷 중독인 경우가 높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고 건강한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역기능적인 분노표현과 자살생각이 높은 군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한국 청소년에게

맞는 검사도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정도에 영향 주는 주요인을 확인한 결과 인터넷 사용시간, 분노표현이 인터넷 중독 정도를 총 29% 설명하여,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시간이 길수록, 분노표현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선행연구에서[7] 분노조절을 잘하지 못하는 집단일수록 인터넷에 더 많이 중독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현실에서 자신의 공격성 행동을 적절하게 표출할 줄 모르고 내면에 억압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공격성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하는 시간이 길어진다고[27]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해 주고 있다. 바람직하지 않은 분노표현은 신체적·심리적·정신적인 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28], 바람직하지 않은 분노표현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청소년은 신체·정신·사회적 건강에 위협받을 수 있는 위협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12].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 정도에 영향 주는 요인에서 자살생각이 배제되었는데 그 이유로 한국형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검사(K-척도)에서는 인터넷 중독을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일반사용자 군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모두 일반사용자 군에 해당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 위험군과 일반사용자 군을 비교하여 자살생각이 인터넷 중독 영향요인인지 인터넷 중독이 자살생각을 설명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더불어 교사, 학부모, 학생을 포함한 인터넷 중독 정도 예방 교육과 중독자를 관리할 수 있는 치료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고, 올바른 학교적응과 교우관계 및 사회성 함양되도록 청소년의 분노조절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의 부적절한 분노표현을 긍정적으로 관리하도록 도와주는 간호중재도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대상이 일개 시에 거주하는 실업계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의 표집 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모든 고등학생에게 일반화하기에 어려울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광범위한 지역의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문계와 실업계의 분노표현 및 자살에 대한 비교 연구

가 필요하다.

둘째, 분노표현, 자살생각, 인터넷 중독 정도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므로, 이들 변인들을 활용하여 인터넷 중독 정도를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학업이나 창조적인 일을 위해서 인터넷을 장기간 사용해야 할 때 인터넷 중독 정도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D 광역시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 191명을 대상으로 실업계 남자 고등학생의 분노표현, 자살생각 및 인터넷 중독 정도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인터넷 중독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간호중재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인터넷상 친구가 있는 경우 분노표현이 높았고, 자살생각은 인터넷상 친구가 있는 경우와 인터넷 사용시간이 길었을 때 높았다. 인터넷 중독과 분노표현 및 자살생각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분노표현과 자살생각 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남자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정도에 영향 주는 주요인으로서 인터넷 사용시간과 분노표현 변수가 총 29% 설명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남자 고등학생의 분노표현과 자살생각이 인터넷에 중독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으며, 친구관계도 분노표현 및 자살생각에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시간과 분노표현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바람직한 친구관계 형성을 위한 상담 및 대인관계 프로그램 개발 시 기초자료로 이용되고,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 활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참고 문헌

- [1]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345
- [2] 류은정, 최귀순, 서정석, 남범우,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우울, 자살사고와의 관계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제34권, 제2호, pp.102-110, 2004.
- [3] 김희숙, 최연희, 유성자, “고등학생의 자아정체성, 스트레스 및 인터넷 중독정도와의 관계”, 정신건강간호학회지, 제19권, 제2호, pp.173-185, 2010.
- [4] 최일립, “중년여성의 분노표현 유형과 정신건강”, 대한간호학회지, 제39권, 제4호, pp.602-612, 2009.
- [5] 김광수, “청소년의 분노수준, 분노대처 방식과 학교생활적응”, 교육심리연구, 제17권, 제3호, pp.393-410, 2003.
- [6] Y. J. Park, H. Ryu, K. S. Han, J. H. Kwon, H. K. Kim, H. C. Kang, J. W. Yoon, S. H. Cheon, and H. J. Shin,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An Explanatory Model Using LISREL,” Western J. of Nursing Research, Vol.32, No.2, pp.168-184, 2010.
- [7] 진춘해, 박철옥, 이은경,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관련 변인 탐색 연구”, 상담학 연구, 제9권, 제1호, pp.709-726, 2008.
- [8] 이만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감성 지능 및 대인관계 성향 차이”,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제11호, pp.201-211, 2009.
- [9] 한기홍,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10] http://www.mogef.go.kr/korea/view/news/news03_01.jsp
- [11] 김용익, 이동훈, 박원모, “고등학생의 ADHD 증상과 인터넷 과다사용 및 우울과의 관계”, 상담학 연구, 제11권, 제1호, 245-264, 2010.
- [12] 박선희, 전경자, “중학생의 인터넷 사용수준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청소년학연구, 제14권, 제2호, pp.71-93, 2007.

[13] 박영주, 한금선, 신나미, 강현철, 천숙희, 윤지원, 신현정, “청소년의 분노 분노표현 유형과 정신 신체 사회적 건강”, 정신간호학회지, 제19권, 제1호, pp.106-116, 2010.

[14] 권영길, 송노원, “아동의 분노조절에 대한 인터넷게임 중독의 영향”, 한국컴퓨터게임학회논문지, 제16권, pp.35-44, 2009.

[15] 김성경, “청소년의 인터넷이용과 사회관계의 상호 영향관계와 학교적응 관련성 연구”, 청소년학 연구, 제16권, 제1호, pp.371-391, 2009.

[16] J. M. Siegel, “The multidimensional anger inventory,”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No.1, pp.191-200, 1986.

[17] 이봉진, “*바이오퍼드백 훈련에 의한 본태성고혈압의 혈압강하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18] A. T. Beck, M. Kovacs, and A. Weissman, “Assessment of suicidal intention: The scale for suicide ideation,” J.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 Vol.47, No2, pp.343-352, 1979.

[19] 신민섭, 박광배, 김중술, 오경자, “고등학생의 자살 성향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9권, 제1호, pp.1-19, 1990.

[20] <http://www.jikim.net/bbs/index.aspx?PortalID>

[21] 이숙, 김남주, “청소년의 친구관계와 인터넷 사용에 따른 인터넷 중독”, 대한가정학회지, 제42권, 제3호, pp.1-16, 2004.

[22] 이은주, 이은숙, “고등학생의 소외와 우울, 자살 사고, 비행과의 관계 연구”, 기본간호학회지, 제9권, 제1호, pp.56-65, 2002.

[23] 이현주, 김미연, 이희재, 권소영, 김민정, 김민주, 방은혜, 이경희, 김수지, 이자형, “고등학생의 인터넷 사용정도와 학교적응, 친구관계에 대한 연구”, 이화간호학회지, 제38권, pp.1-18, 2004.

[24] 문동규, 김영희,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관련된 유발변인의 메타회귀분석”, 상담학연구, 제12권, 제3호, pp.945-964, 2011.

[25] S. Cui, Y. Cheng, Z. Xu, and Y. Chen, “Wang

Peer relationships and suicide ideation and attempts among Chinese adolescents,”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Vol.37, No.5, pp.692-702, 2010.

[26] 구승신, 정옥희, 장선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사회적지지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9호, pp.225-237, 2011.

[27] 박선희, 전경자, “중학생의 인터넷 사용수준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청소년학 연구, 제14권, 제2호, pp.71-93, 2007.

[28] N. E. Mahon, A. Yarcheski, and T. J. Yarcheski, “Positive and Negative Outcome of anger in early adolescents,” Research in Nursing & Health, Vol.13, pp.17-24, 2000.

저 자 소 개

진 은 영(Eun-Young Chin)

정회원



- 2010년 8월 : 전북대학교(간호학석사)
- 2011년 3월 ~ 현재 : 전북대학교 (간호학박사과정)
- 2011년 3월 ~ 현재 : 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 성인간호, 노인간호, 시뮬레이션

서 영 미(Young-Mi Seo)

정회원



- 2007년 8월 : 원광대학교(보건학석사)
- 2010년 2월 : 원광대학교(보건학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 성인간호, 기초간호